

“노조는 정리하고 싸움 물러서지 않는다”

해고 4년 아사히글라스지회 승리 결의대회 ... “자본이 시간 끌면 분노만 키울 뿐”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와 지회 투쟁에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4년을 맞아 결의대회를 열고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간다고 다짐했다.

노조와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지회는 6월 19일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해고 4년 아사히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사히글라스는 2015년 6월 지회 조합원 178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지회는 4년 동안 끈질기게 복직 투쟁을 벌이면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과건을 처벌해달라는 법률 투쟁도 이어갔다. 지회는 투쟁으로 검찰의 불법과건 불기소 무혐의 처리를 뒤집었다. 지회가 재항고했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대구고검이 재수사를 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10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사측은 문자 한 통으로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조합원과 연대하는 동지들이 있는 한 자본은 결코 노동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사히 자본이 시간을 끌수록 조합원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불법과건과 정리해고를 사과하고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촉구했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은 투쟁사 “아사히 비정규직 동지들이 대구검찰청 천막투쟁 등 다양한 투쟁으로 검찰의 결정을 뒤집는 성과를 거뒀다. 무소불위 검찰의 쿫대를 꺾은 셈이다”라며 “이제 자본과 권력이 친 장애물을 넘어 현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김태영 본부장은 “문제인 정부와 자본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땅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ILO 핵심협약 기준을 추구하고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싸

운 노동자를 잡아 가두려 한다”라며 “ILO 핵심협약 기준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외국자본이 한국 땅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서 계속 싸우면서 전국 노동자의 연대를 건설하면 복직할 수 있다는 격려가 이어졌다.

김준일 노조 구미지부장은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싸움에 단 한 치도 물러서 본 적 없다. 쌍용차, 콜텍에서 보았다. 물러서지 않고 투쟁하면 승리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준일 지부장은 “아사히 4년 투쟁을 돌아보며 연대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넘어 사회의 연대를 건설해 싸우면 이긴다는 희망을 보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노조 경북권 조합원과 충북 제천의 간디학교 학생들, 산별과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하는 문화제 형식으로 열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아사히글라스 공장 정문 앞에 복직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씨를 새기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원·하청 연대해 노조파괴 저지, 노조 할 권리 사수”

한국지엠 비정규직 세 지회, 원청 직접 교섭 요구 ...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화 절차 시작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 세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한국지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와 지회는 6월 18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원청 직접 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지엠의 부평, 군산, 창원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원청과 직접 교섭,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으로 대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 판결을 받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패소해 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다. 하지만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불참하자 지난 6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대우 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

부장은 대회사에서 “사내하청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는 노동 삼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요구다. 한국지엠은 교섭에 나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절차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세 지회 대표자들은 한국지엠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공동투쟁으로 직접 교섭과 정규직화 길을 열겠다고 결의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 군산지회는 문 단은 군산공장 앞 천막을 정리하고 부평에 올라와 끝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황호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이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노조파괴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연구소 법인 분리 후 단협승계를 거부하고, 노사합의를 어기고 부평공장의 근무 형태를 바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황호인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현장에서 노조 할 권리를 빼앗아 공장 철수를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공격에 나서고 있다. 원청과 하청 노조의 연대투쟁으로 노조 할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황호인 지회장은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는 투쟁, 카허 카셈 사장을 한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라며 “비정규직 폐지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부평, 군산, 창원지회의 모든 조합원이 함께 싸우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세 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부평공장 의장 라인에서 현장순회했다.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 활동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장 노동자들에게 원청과 하청의 벽을 넘어 한국지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촉구했다.